

이하선종양에 대한 임상적고찰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박혁동* · 심윤상 · 오경균 · 이용식

타액선은 주타액선과 부타액선으로 구분되며 주타액선에 원발하는 종양중 80% 전후가 이하선종양이고 그중 약 20-40%가 악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하선종양은 병리조직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그 성장이 비교적 느리다는 특성이 있다.

저자들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은 이하선종양 환자 101명의 임상상을 후향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1)악성종양은 51례(50.1%)였으며 남녀비는 1:2.2이었고 호발연령은 30대였다. 혼합종이 43례(84.3%)로 가장 많았으며 46례(90.1%)에서 천엽에만 존재하였다. 세침흡인세포검사의 정확도는 51.4%였고 전 환자가 수술을 받았으며 슬후 합병증으로 일시적 안면신경마비 9례, 타액루 8례, Frey증후군이 4례에서 나타났으나 재발은 없었다.

2)악성종양은 50례(49.9%)였으며 남녀비는 1.4:1이었고 호발연령은 50대였다. 점액표피양암종이 21례(42.0%)로 가장 많았고 선암종 8례(16.0%), 악성혼합종 5례, 선양낭성암종 5례 등의 순이었다.

3)악성종양의 임상적병기는 II기 9례(18.0%), III기 17례(34.0%), IV기 24(48.0%)였으며 종양이 천엽에만 있었던 경우는 17례 (34.0%)였고 66.0%에서 양엽에 존재하였다. 세침흡인세포검사의 정확도는 35.5%였고 치료방법은 수술, 수술 및 병합치료 45례, 방사선치료 3례, 항암화학요법 2례였다. 슬후합병증으로 일시적 안면신경마비 9례, 영구적 마비 3례, 타액루 4례, Frey증후군이 3례에서 관찰되었다.

4)악성종양의 18례(36.0%)에서 재발이 관찰되었으며 그 중 6례(33.3%)는 경부에서의 재발이었고 원격전이는 12례(66.7%)에서 발견되었다.

5)악성종양 전체의 5년 보험생존율은 79.3%였고 치료방법에 따른 생존율은 수술 및 방사선치료 88.2%, 수술 83.3%, 방사선치료 50.0%의 순이었다.

Parotid Gland Tumors

Hyuk Dong Park, MD.*, Yoon Sang Shim, MD.,

Kyung Kyoon Oh, MD., Yong Sik Lee,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Head & Neck Surgery**Korea Cancer Center Hospital*

Primary tumor arises infrequently in the parotid gland and generally, only about 20 to 40 percent of which prove to be malignant. They are characterized by histopathologic diversity, slow tumor growth, significant proportion of patients who have received previous treatment elsewhere.

We have reviewed retrospectively 101 cases of parotid gland tumors which were treated for the recent eight years (1985-1992). Non-neoplastic tumor-like lesions were all excluded.